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 故 브레이즈델 군목 1주기 추모식

“조건없는 그의 사랑 이어받자”

“고아수송작전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고 말한 브레이즈델 군목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 아 남은 여생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

1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사회복지법인 충현원 에서는 고(故) 러셀 브레이즈델(Russell Blaisdell) 군목의 1주기 추모식 및 회고록 출판기념 식이 열렸다. 공군 중령이었던 브레이즈델 군목 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 1천여명을 피신시켜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로 불리온 인물이다.



회고록 출판 기념식도 열려

브레이즈델 군목은 지난해 초 아들 카터 브레 이즈델(72) 목사에게 “자신의 회고록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 명의 아버지’의 한국어 판권을 한국 전쟁 당시 고아원이었던 광주 ‘충현원’에 건네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해 5월 1일(향년 97 세) 숨을 거뒀다. 충현원에서의 이날 행사는 고 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먼저 브레이즈델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전쟁고아 대표 이강훈(75·용인시 기흥구)씨가 조사(弔詞)를 읽어 내려갔다. 행사에는 재향군 인회 관계자 등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지 만, 그는 영어로 된 조사를 준비했다.

목숨 구한 전쟁고아 다수 참석

브레이즈델 군목의 장남인 카터(Carter) 브레 이즈델 부부를 위해서였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에도 브레이즈델 군목을 만나 “고맙다”는 인사 를 하기 위해 꾸준히 영어공부를 해왔고 지난 2003년에 그 소원을 이뤘다.

황해도 해주에 살던 이씨는 부모님이 돌아가 시고 난 뒤 참혹한 전쟁을 경험해야 했다. 그는 동생 둘을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떠났다. 이씨 와 동생들은 서울의 한 고아원을 찾았고 이때 브 레이즈델 군목을 만나게 됐다.

이날 출판기념식장에는 이씨처럼 브레이즈델

군목의 보살핌을 받은 두 아이가 더 있었다. 이 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던 김경애 (여·68·서울시 동작구)씨와 양윤화(75)씨가 바 로 그들이었다.

이들은 “전쟁 중에 브레이즈델 군목을 만난 아이들은 서로를 ‘축복받은 아이’라고 부른다” 며 “이번에 출판된 회고록을 모든 한국사람들이 읽고 그분처럼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 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장남 카터씨에 감사의 메달

한편 이날 추모식에는 브루스 마셜 미공군 8 전투비행단 군목과 박효천 한민족지도자회의 대 표, 황일봉 남구청장, 강운태·김영진 국회의 원 당선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브레이즈델 군목의 뜻을 기렸다.

보훈처와 재향군인회에서는 이날 행사에서 브레이즈델 군목의 장남인 카터씨에게 감사의 메달을 수여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고 러셀 브레 이즈델 군목의 1주기 추모식 및 회고록 출판기 녘식이 1일 광주시 양림동 사회복지법인 충현 원에서 열렸다. 행사장에서 어린이합창단이 축 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한국전쟁 당시 브레이즈델 군목의 보살핌을 받 은 이강훈, 양윤화, 김경애(뒷줄 왼쪽부터)씨, 충현원 유해량 목사(앞줄 왼쪽)와 카터 브레이 즈델 목사 부부.

U대회 유치 길조?

멸종 위기종 황구렁이 광주 도심 4번째 출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실사가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멸종 위기종인 황구렁이가 최근 나흘새 4차례나 발견돼 화제다. 일부 호사가들은 광주 U대회와 관련, 광주 유치 가 능성을 높여주는 상서로운 길조로 연결짓고 있다.

1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 면 이날 오후 2시에 광주 북구의 서 강중학교 화단에 황구렁이 1마리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 일들이 이를 포획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12분께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농장에 서도 황구렁이 1마리가 나타나 구 조대원들에 의해 포획됐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암수 1쌍일 것으로 추정되는 황구렁이 2마리 가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나흘 사 이 벌써 4차례나 황구렁이가 발견 된 것이다.

특히 북구 서강중학교의 경우 앞서 발견됐던 동림동 어린이집이 나 아파트 화단과 함께 모두 운암 산을 둘러싸고 있는 곳여서 당

시 놓아줬던 구렁이가 다시 나타 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 구조대원은 “오늘 발 견된 황구렁이는 몸 곳곳에 상처 가 있어 지난달 28일과 29일 포획 됐던 황구렁이와는 다른 것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낮 기온이 섭씨 30도에 육박 하는 초여름이기에 황구렁이 가 자주 나타나는 것 같다”며 지나 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확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 광주로

내달 14일 DJ센터서 대회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기량을 겨루는 게임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6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아마추어게임대 회 'The Playing Gwangju Game 2008'(TPGG2008)을 개최한다.

광주정보화산업진흥원 주관

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건 전한 놀이문화로서 e-스포츠를 대중 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지역 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종목은 피파온라인과 스페셜 포스, 서든아택, 프리스타일 등 총 4

개 종목으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5월 중 온라인 및 전국예선을 걸쳐, 6월 14일 최종 본선을 치른다.

본 경기와 함께 광주시 서구청장배 카트라이더대회와 게임세미나, 게임 체험관, 코스튬플레이, 프로게이머초 청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돼 관 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 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www.tpgg.org) 참조.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적골 산책로 완공, U대회 광주 유치 기원

5일 동구 구민 건강걷기대회

광주시 동구가 동적골 산책로 완공과 U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하 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새물 게 조성한 동구 운동동 동적골 산 책로 완공을 기념하고, U대회 광 주 유치를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 망을 담아 오는 5일 산책로 일원에 서 '제1회 동구 구민 건강걷기대 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동구 관내 각급 사회단체회원 및 구민 1천500여명 이 참가해 향기로온 봄내음과 주 변 경관을 만끽하며 산책로 주변 을 걸을 예정이다.

지난 2006년 5월 공사를 시작한 동적골 산책로는 총 길이 2.1km에 철쭉과 잔디 15만여 주를 심고, 체 육시설, 분수대, 호수, 화장실 등을 설치,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고 있

다. 동구는 증심사지구 환경복원사 업이 마무리되면 동적골 일대를 운동동 예술의 거리와 연계, 문화 와 휴식이 함께하는 문화생활공간 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이다.

유태평 동구청장은 “이번 건강걷 기대회는 모든 광주 시민들의 열망 인 U대회 광주 유치 염원을 담은 것은 물론 주민화합과 건강까지 행 기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대 회가 될 것”이라며 “녹음이 우거진 동적골 산책로에서 열리는 구민전 건강걷기대회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1st Taste House' (1등맛집) featuring various restaurants and their signature dishes. The ad includes photos of food, restaurant names like '유진정', '석양돌솥밥', and '행복의 꿈', and contact information. The background is a vibrant green and yellow.